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원광대 안전보건학과 학생 대상 광주첨단물류센터 현장견학

2025. 11. 21.



21일 쿠팡 광주첨단물류센터에서 원광대학교 안전보건학과 학생 및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CFS, 미래 안전보건전문가 육성 의지 강조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
- 학생들 “학교서 배운 안전보건 이론이 실제 산업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험”

2025. 11. 21.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1일 원광대학교 안전보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 광산구 평동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광주첨단물류센터(Fulfillment Center)에서 현장견학을 진행했다.

쿠팡 광주첨단물류센터는 호남권 최대 규모로 근로자를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과 체계적인 안전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물류 업계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곳이다.

이번 현장 학습은 지난 9월 CFS가 원광대와 체결한 ‘안전보건 전문 인재 양성’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EHS(환경·건강·안전, Environment Health Safety) 직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험 행사에는 원광대학교 안전보건학과 박지영 학과장, 최윤희 교수, 재학생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라이언 브라운 CFS 대표이사를 대신해 채종민 최고안전책임자(CSO)가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맞이했다.

학생들은 지게차와 작업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동선 분리 관리부터 입고·출고·허브 라인의 안전장치, 작업자 보호 장비 등을 직접 살펴보고 CFS의 산업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체험했다. 또한 EHS 팀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CFS안전보건을 묻다’라는 세션을 준비해RCA(근본 원인 분석, Root Cause Analysis)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조치 도출에 성공한 CFS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원광대 안전보건학과 3학년 김소연 학생은 “쿠팡에 자동화 물류 로봇이 많아서 안전보건 관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 같다”며 “수업 시간에 이론으로 접하던 안전 관리 절차와 개선 기법을 직접 확인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라이언 브라운 CFS 대표이사는 “쿠팡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는 원칙 아래 글로벌 수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수립하여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견학이 학생들에게 미래 안전보건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대학과 협력해 더 많은 현장 중심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